

01

광장에서 만난 세무사, 시장에서 만난 은행원

- 2025년, 책상을 떠나 현장으로 나간 기록 -

프롤로그: 세무서 문턱이 너무 높다면

“세금이 궁금한데 구청이나 세무서까지 가기는 좀 부담되고, 세무사 사무실에 가자니 비용이 걱정되고...” 우리가 만난 많은 구민이 호소하는 어려움이었습니다. 특히 하루하루 가게를 비울 수 없는 전통시장 상인분들이나,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해 정신이 없는 청년 창업가들에게 ‘세무 상담’은 필요하지만 닿기 어려운 숙제와도 같았습니다.

강남구 재산세과는 고민했습니다. “구민들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구민들이 계신 곳으로 가면 어떨까?” 그렇게 2025년, 우리는 익숙한 사무실 책상을 벗어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광장으로, 그리고 삶의 활기가 넘치는 시장 한복판으로 나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세무사회, 그리고 신한은행의 전문가들과 함께 ‘세무 어벤져스’를 꾸려서 말이죠.

제1막: 축제의 현장, 상담이 즐거워지다

9월의 어느 날, 맛있는 냄새와 음악 소리가 가득한 ‘야식행복 페스티벌’ 현장. 그 한편에 조금 낮은 부스가 차려졌습니다. 바로 ‘찾아가는 세무상담회’ 부스였습니다. 처음에는 축제를 즐기러 온 시민들이 “여기서 무슨 세무 상담을 해?”라며 의아한 눈빛으로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곧 부스 앞을 상담을 기다리는 줄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30대 부부는 유모차를 끌고 축제에 왔다가 우연히 상담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당첨 후 취득세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팠는데, 축제 구경 왔다가 전문가에게 무료로 상담을 받으니 속이 다 시원하네요.” 딱딱한 상담실이 아닌, 열린 공간에서 편안한 분위기로 대화가 오가니 질문도 더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마을세무사님들은 어려운 세법 용어 대신 쉬운 말로 차근차근 설명을 이어갔고, 구민들의 표정은 한결 밝아졌습니다. 세무 행정이 꼭 엄숙하고 무거운 필요는 없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